

향기로운 예물

♣ **십일조헌금** 기업 085-056206-04-030(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강준식 공희라 김규찬 김외자 김재인 김정자 김춘화 김하나 김형국 김희규 박금엽 박순자
박희재 방복순 배세영 석애자 송형기 오영주 윤 숙 윤병호 윤영준 윤준훈 이기자 이미지
이영순 이형록 임만순 전병구 정은현 지상건 채명엽 채희춘 허봉선

♣ **선교헌금** 기업 085-056206-04-086(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김규찬 김만형 김병을 김외자 김정자 김지한 김창구 김춘화 박금엽 박부웅 박춘자 방복순 송다해
윤 숙 윤정호 이경순 이기자 이복현 이영순 이옥남 이인숙 이형록 조규례 채명엽 채희춘 최기훈
허봉선 에스더여전희

♣ **감사헌금** 기업 085-056206-04-047(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이필례 김경엽 김규찬 김미희 김병래 김병을 김수자 김숙자 김중익 김춘화 김현구 박금엽 박부웅
박복순 백경자 송백현 심순옥 안지영 양영옥 이경자 이기자 이노을 이미지 이상이 이설아 이소은
이승애 이오순 이옥남 이인숙 임승주 전병구 전진선 정옥순 주성탁 최귀남 최선미 황영옥 김민혁
양일석 무 명

♣ 일천번제헌금

이진우 김명숙 김민성 김수현 김정훈 김준구 김준현 김지훈 김춘화 김혜란 박민서 박순자 박정숙
박복순 백경자 송백현 심순옥 안지영 양영옥 이경자 이기자 이노을 이미지 이상이 이설아 이소은
이승애 이오순 이옥남 이인숙 임승주 전병구 전지선 정옥순 주성탁 최귀남 최선미 황영옥 김민혁
양일석 무 명

♣ 월정헌금

박춘자

주간 성경연구

23주 * 새벽기도회 본문입니다 *				
주 일	예레미야 12장 7절 ~ 17절			
월요일	예레미야 13장 1절 ~ 14절	목요일	예레미야 14장 13절 ~ 22절	
화요일	예레미야 13장 15절 ~ 27절	금요일	예레미야 15장 1절 ~ 9절	
수요일	예레미야 14장 1절 ~ 12절	토요일	예레미야 15장 10절 ~ 21절	

원로장로	이태일 정기성		
시무장로	윤준훈 강영성 김병을 최기훈 배경철 임만순 박권재 최성현 윤영준		
은퇴장로	방현옥 장영원 윤영원 이일로 천세력 방석대 윤병호 윤정호		
교역자	부 목 사	김제호	
	전 도 사	이필례	
	주전임전도사	김두산	
	교육전도사	이송이 문수경	
찬양대	지 위 자		할 쉐 루 아 : 김하나 훈 산 나 : 김안나 시 온 : 에 덴 : 최원지 엔 젤 : 이난수
	반 쉐 주 자	오르간	심혜윤
		피아노	김민지 오영주 김미희 공희라 정희연
		틀라리넷	박진숙 이난수
선교사	뿔트	김민지	
		솔 리 스톱	김안나 정예슬
		태 국 : 김정숙	이 집 트 : 김진숙
	파송선교사	수 리 남 : 안석철 이성옥	A X 국 : 김해월
협력선교사	맥 시 코	미 국 : 김다니엘	A X 국 : 이훈도
		미 국 : 최옥희	조 망 비 크 : 홍두표 김순영
		태 국 : 박영성 정세미	태 국 : 박경환 이순연
협력교회	제주 대광장교회		
협력단체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세계선교회(G.M.S.), 서울남노회 목양선교회, 소망교도소, 영등포시합회 중국세계선교회, 서울남노회 G.M.S.		

2019. 06 02. 주일 예배 설교	
<p>진정한 고르반은 무엇입니까?</p> <p>설교자 이진우 목사</p>	

본문의 내용은 전통과 유전을 따르지 않는 제자들을 비판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고발로부터 시작됩니다. 본문 2-4절을 보면,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노릇을 씻음이라).” 고 했습니다. 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않는 제자들을 고발하며 이로 인하여 예수님을 고발하려 하는 불순한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의 고발에 대하여 오히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십니다. 8-9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그리고 그들이 잘못을 행하고 있음을 구제하려고 “고르반”을 들어 말승하고 계십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시간을 드려 예배를 하고, 물질을 드리며, 봉사와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자칫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 이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위험성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1. 잘못된 고르반, 물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 본문 11절입니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거만 하면 그만이라.” “고르반”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말 그대로 “고르반”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결코 다른 목적과 용도로는 사용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탐욕으로 물들어 있는 사람들 가운데 소위 율법에 대해 좀 안다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로 이것을 악용하기 시작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전통과 유전을 앞세워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소홀히 여겼던 것입니다. 자신들을 위해서는 그렇지 않으면서 부득 부모님을 봉양하기 위해 필요한 예물을 고르반으로 바침으로써 호도의 책임을 회피한 채 그저 종교 생활에만 매달린 것입니다. 물론 그 바탕에는 물질에 대한 탐욕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위해서는 물질을 사용하고 또 하나님께 물질을 드려야 함에 자신을 위해 쓸 물질이 아닌 부모님께 드려야 할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자신의 이익은 챙기고,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며, 그리고 부모님 섬겨야 할 것을 “고르반”하며 부모님 봉양을 회피하는 아주 교묘한 수법을 고안해 낸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소유한 물질을 하나님의 계명보다, 부모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 숭배와 다름없는 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이익에 따라 왜곡하고 바꾸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는 더욱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을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천국 문을 막아선 이들로 책망 받은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결국 이러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행동으로 그들의 종교는 믿음과 그 말씀을 말씀의 정신보다 겉모양만 있고 능력은 없는 종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자신의 물질을 더욱 사랑하며 해야 할 사명을 잊어버렸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고 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물질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물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25-33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나 곤증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꽃도 하나님은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보나 믿음이 작은 자들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고 하셨습니다. 성도는 말씀을 따라 진정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 바로 서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며 온전한 “고르반”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이 되어 더욱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2. 진정한 고르반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 그렇다면 진정한 “고르반” 즉 하나님께 드림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진정한 고르반은 나 자신 전체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려야 한다는 것에만 집중하다 보니 시간과 물질과 또 다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고르반은 나에게 속한 어떤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내 삶 전부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내게 있는 재물과 시간, 건강과 봉사와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은 나의 뜻이나 나의 야망을 따라 움직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의해 움직입니다. 그는 봉사에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법의 지배를 받고,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부를 고르반으로 드리는 수준을 뛰어넘어 우리 전부, 나 자신을 고르반으로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고르반의 표 모범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위한 고르반으로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온전한 성령의 본을 보이셨을 뿐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따르라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에서는 “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고 하였고, 마가복음 장 34절에서도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고 하셨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14장 27절에서도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고 하셨습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현재 내가 믿음을 가진 성도께서 당하는 모든 상황과 어려움의 일과 문제와 아픔과 낙심입니다. 예수를 향한 믿음을 지키려다보니 핍박도 있습니다. 아픔도 있습니다. 따른 육체의 질병과 인생의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경제의 문제, 삶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와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의 좋은 것만 받기 원하지 않으십니다. 십자가의 상처, 신앙의 아픔, 육체의 질병, 마음의 근심과 걱정, 수고의 짐과 인생의 짐까지도 우리 삶의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고르반” 하여 드리시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께 드리진바 되신 것처림, 우리도 하나님께 드리지는 온전한 고르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일부를 드리는 고르반이 아니라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고르반으로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장 큰 잘못은 자신들의 탐욕을 포장하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한 것입니다. 자신뿐 아니라 일반 대중까지 잘못된 길로 인도했기에 그들은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진정한 고르반은 나 자신을 드리는 것임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하고 나의 무엇을 드리기보다 먼저 나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며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SINCE 1975

No. 45 - 23

2019. 06. 09.

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Sung - Hyeon Presbyterian Church

표어: “여호와께 돌아가자!” (호세아 6장 1절)

목표: 1.진리 파수 2.천국일꾼 양성 3.민족 복음화 4.세계 선교

동산의 샘

A garden fountain

담임목사 Senior Pastor	이진우 Yee, Jin Woo
------------------------------	----------------------------

● 0823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33마길 18(개봉동, 성현교회)

● 18, Gyeongin-ro33Ma-gil, Guro-gu, Seoul, Korea

● 교회사무실: 2613-2080 / 2683-2080

● 팩 스: 2689-1230

● 홈페이지: www.sunghyeon.or.kr

오전에배성령강림주일

[1부] 오전 7시	사회: 윤 영 준 장 로
[2부] 오전 9시 30분	인도: 김 제 호 목 사
[3부] 오전 11시 30분	인도: 이 진 우 목 사
목 도	할렐루아찬양대 (Silent Prayer)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다 갈 이 (The confession of the Apostles Creed)
찬 양	찬송가 185(통179)장 다 갈 이 (Praise)이 기쁜 소식을
통 성 기 도	다 갈 이 (Prayer all together)
대 표 기 도	[1부] 최 상 결 집 사 (Prayer)[3부] 윤 영 준 장 로
성 경 봉 독	[1,3부] 마가복음 7장 14~23절[신약p.64] 이 강 우 권 사 (Scripture)[2부] 요한복음 5장 39절[신약p.151]
찬 양	[1부] 달고 오묘한 그 말씀[찬송가200장] 다 갈 이 (Anthem)[3부] 내 영혼에 햇빛 비쳐 [이호준] 할렐루아찬양대
설 교	[1,3부]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깨갯함 이 진 우 목 사 (Sermon)[2부] 성경 핵심파일, 예수 그리스도 김 제 호 목 사
헌 금 봉 헌	[1,2,3부] 내게 있는 향유 옥합 다 갈 이 (Offering)
봉 헌 기 도	이 진 우 목 사 (Offering Prayer)
교 회 소 식	이 진 우 목 사 (Announcement)
찬 양	찬송가 183(통172)장 다 갈 이 (Praise)빈 들에 마른 풀같이
축 도	이 진 우 목 사 (Benediction)
에 배 후 찬 양	[1,2부] 찬송가 351(통389)장 믿는 사람들은 다 갈 이 (Marching on Praise)[3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 우리교회는 개역개정판 성경을 사용합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찬양예배드보라여전도회 헌신예배

오후 3시	사회:[고문] 김 병 을 장 로
목 도	할렐루아찬양대
성 시	시편 23편 6절 사 회 자
간 구	사 회 자
헌 신 결 의	[총무] 임 영 득 권 사
찬 양	찬송가 285(통209)장 다 갈 이 주의 말씀 받은 그 날
기 도	[회장] 최 귀 남 집 사
성 경 봉 독	열왕기하 23장 1~3절[구약 p.602] [사기] 김 해 숙 권 사
찬 양	할렐루아찬양대
설 교	요시아의 개혁 이 종 옥 목 사 사 랑 의 교 회
예 물 봉 헌	[회계] 이 언 숙 권 사
특 송	드보라여전도회
광 고	담 임 목 사
찬 양	찬송가 449(통377)장 다 갈 이 예수 따라가며
축 도	이 종 옥 목 사 사 랑 의 교 회

수요기도회

오후 7시 30분	인도: 이 진 우 목 사
찬 양	시 온 찬 양 대
기 도	[다음주:황영옥권사] 민 옥 희 권 사
성 경 봉 독	히브리서 10장 23~25절[신약p.363] 인 도 자
설 교	왜 교회는 모이기를 힘써야 하나요? 이 진 우 목 사

예배시간

주일1부예배	주 일 오전 7:00 본당	영 아유치부	주 일 오전 10:00 제1교육관
주일2부예배	주 일 오전 9:30 로벨나무	유 초 등 부	주 일 오전 10:00 유초등부실
주일3부예배	주 일 오전 11:30 본당	중 고 등 부	주 일 오전 9:30 로벨나무
주일찬양예배	주 일 오후 3:00 본당	청 년 부	주 일 오후 2:00 청년부실
수 요 기 도 회	수요일 오후 7:30 본당	소 망 부	토요일 오전 10:30 본당
금 요 기 도 회	금요일 오후 9:00 본당	전 도 특 공 대	목요일 오후 2:00 교회식당
새 벽 기 도 회	매 일 오전 5:00 본당		

교회소식

- **광고**
- **오늘은 성령강림주일로** 지킵니다. 준비된 봉투에 정성껏 예물을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 **[드보라여전도회 헌신예배]**
찬양예배는 드보라여전도회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강사는 사랑의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종옥 목사입니다.
- **[금요기도회]**
이번 주(6/14) 금요기도회는 “유초등부” 주관으로 합니다. 아울러 유초등부 야외예배를 15일(토) 오전 9시 30분에 출발합니다. 장소는 고양시에 있는 ‘원마운트’입니다. 성도님들의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여름성경학교 교사강습회]**
여름성경학교 강습회가 “미션 52! 우리 함께 세워요!(느6:16)”라는 주제로 14(금)~15일(토) 2일간 신일교회당에서 있습니다.
- **[태신자전도]**
상반기 태신자 전도를 “잃어버린 자들에게로” (마10:5~6)라는 주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작정한 태신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목장 예배에 초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청일은 6월 30일(주일)입니다.
- **[단원모집]**
아래와 같이 제5기 주니어 셀라 단원 모집을 합니다.
대상: 초등학교 1학년 이상(주일학교 학생) 연습시간: 매주일 오후1시 ~ 1시 35분
문의: 박진숙 집사(010-8792-9140)
- **[여름행사 지원]**
여름행사(성경학교, 수련회)를 위한 티셔츠 구입헌금을 하오니 초원별로 모금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름 성경학교/수련회 봉사자]**
“여름 성경학교/수련회 봉사자” 신청을 받습니다. 주일학교 각부서 여름행사에 봉사하시길 원하시는 분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여름행사에 필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6월 행사 안내]**
6월 9일(주일) 성령강림주일 / 드보라여전도회 헌신예배
6월 15일(토) 유초등부 야외예배
6월 23일(주일) 총회주일
6월 27일(목) 서울남노회 장로회 순회예배
6월 30일(주일) 태신자 초청 주일

○ 모임

이 번 주	다 음 주
*여전도회월례회(3부예배후/본당)	*남전도회월례회(3부예배후/본당) *교육위원회월례회(찬양예배후/로벨나무)

○ 환영합니다

- 19~7 강순여 성도(사라여전도회/고척9목장) 스스로

○ 교우소식

- 이기자 권사(소망1/고척2) 선행목자병원 입원(6월5일 어깨수술)

○ 교회를 섬기는 분

	성 단	차	중 식	오전식사	주방봉사	교회청소
이번주	이인숙 권사	황인해 학생	정기성 장로, 심순옥 권사/전병구 집사, 이인숙 권사	박영애 권사	총성1 소사 총성2 특별	중고등부
다음주	오현진 집사	김현수 청년	박권재 장로, 송영숙 권사	윤조훈 장로	민음1 산도림기복광명 민음2 등촌	청년부

6월	순 서	1 부	3 부			찬 양 예 배		수요기도회
		기 도	기 도	성경봉독	사회/인도	기 도	기 도	
	22주(2일)	김경엽 집사	최성현 장로	박금옥 권사	임만순 장로	장윤주 집사	강은미 권사	
	23주(9일)	최상걸 집사	윤영준 장로	이강우 권사	김병을 장로	최귀남 권사	민옥희 권사	
	24주(16일)	박종삼 집사	윤조훈 장로	이근자 권사	박권재 장로	최상걸 집사	황영옥 권사	
	25주(23일)	장윤주 집사	강영성 장로	박순자 권사	최성현 장로	홍정훈 집사	이육남 권사	
	26주(30일)	유현호 집사	김병을 장로	강은미 권사	윤영준 장로	유현호 집사	곽정순 권사	
	예배안내	박권재 최성현 윤영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